

아직도 자라고 있는 '텔레비전 키드'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생애

이대범(미술평론가)

장면 1 : 텔레비전 키드의 탄생

우리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 열광하며 보았던 그 81년의 만화 주인공들은 실은..... 브라운관 안의 전자총이 쏘아대는 전자빔이 만들어낸 수많은 휘점, 즉 빛의 점들에 불과한 거야. 그런 빛의 점들의 집합체가 바로 *일곱난쟁이*였고, *오로라공주와손오공*이었고, *집없는소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해야 그러한 휘점, 즉 전기신호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 하고 있었던 셈이란 말이지..... 80년, 81년에 말야. (필자 강조)

- 백민석, 《헤이, 우리 소풍간다》, 문학과지성사, 1995, p.209.

컬러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불쑥 찾아왔다. 1980년 겨울에 말이다. 1979년 겨울 어떤이는 부하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매서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가 싶었다. 그러나 광주의 많은 사람들은 정체모를 총에 쓰러졌다. 봄은 짧았으며,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총을 숨기고 찾아왔다. 그것은 총이었지만 무섭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았다. 단지 신기했다.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총 앞에 옹기종기 모여 그곳에서 뿔어져 나오는 총천연색 빛을 내장하고 있는 전자총을 무감각적으로 맞고 있었다. 어둡고 암울해보이던 세상이 각양각색의 색으로 물들고 있는 지점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른들은 “땡 전” 뉴스에, 아이들은 미제 또는 일제 만화영화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러나 떠올려 보건데, 당시 프로야구가 그랬고, 영화가 그랬고, 88서울 올림픽 결정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파시즘 세력은 사람들에게 기만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한 것이다. 마치 그곳이 '신세계'인 것처럼.

(전자)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기만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총천연색으로 치장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후로 총천연색 이미지는 과잉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더욱더 교묘하게 지금 여기가 '신세계'라는 것을 설파했다. 설령 이데올로기에 기만당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컬러 텔레비전의 전자총을 맞은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그곳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까지 총천연색 이미지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컬러 텔레비전을 신기해하지 않는다. 총천연색 이미지는 매혹적으로 다가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이제 그들은 멍하니 그것을 보는

것에서, 그것을 읽으려 한다. 이것이 진정한 '텔레비전 키드'의 탄생이다.

장면 2 : 텔레비전 키드, 컬러 텔레비전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자라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늘 돌아오게 마련이다. (.....) **영웅은 늘 미제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 왜 우리는 그들의 영웅을 온전히 우리의 영웅으로 받아들일까. (필자강조)

- 허문영, <마침내 우리의 영웅이 왔다>, 《씨네 21》562호, p.102.

컬러 텔레비전이 그 휘황찬란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을 때, 손동현은 태어났다. 그에게 컬러 텔레비전은 불쑥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신기해하기 보다는 그것을 그저 가지고 놀았을 뿐이다. 그곳에서 동물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영웅을 만나기도 했으며,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기도 했다. 그에게 컬러 텔레비전은 장난감 이면서 삶이면서 지향점이다. 그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총 천연색으로 발광했다. 그들은 불사신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사라질 듯하면서 또 돌아온다. 총천연색으로 치장한 이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모두들 '미국' 태생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마당은 분명 '미국'인데, 그들은 어느덧 지구촌을 이야기한다. 즉 그들이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에 담고 있는 것은 한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촌'의 이야기로 환유시켜 다루고 있다.

미국의 문화는 더 이상 미국만의 문화가 아니다. 손동현은 미국화 된 사회적 구성 요건 속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TV나 스크린이 뿜어내는 전자총(실탄은 헐리웃 이미지들)의 총알받이를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처하며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냈으며, 자본에 의해 저항과 혁명마저도 복제되는 대중문화를 일용할 양식처럼 매끼 먹으며 살아왔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자신의 저변을 견고하게 확대해버린, 문화적 제국주의를 인식하고 나아가 반성적 사유까지 다다르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그것들은 단지, 동시대의 문화 지층을 보여주는 현실로 보일 뿐이다. 손동현의 작업은 우리의 대중문화 곳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뿜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팝 아이콘(골름, 슈렉과 동키, 맥도날드, 배트맨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괴물이나 광대의 이질적 형상을 하고 있지만, '친숙'하다. 같이 놀고 함께 자란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장면 3 : 텔레비전 키드의 자발적 거세

<영화와 CF 캐릭터, 전통 동양화로 변신(연합뉴스)>, <갈색 한지에 그린 헐리우드 캐릭터(민중의 소리)>, <손동현 개인전, 팝아트...한국화를 웃기다(동아일보)>, <동양화가 고리타분하다고?(매일경제)>, <동양화에 슈렉 초상화-만화요소 차용 팝아트적 표현(경향신문)>은 지난 1월 손동현 개인전에 관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이 기사에 기발한 댓글을 달았다. 합성이다. "3D 캐릭터들이 이렇게 변신하다니 신기하다.", "슈렉이 옛날부터 없었으니 최근에 그려진 그림이다.", "친근한 느낌이다", "빌어먹을 미국놈들 한국을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기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슈렉이 동양화에 나오나요?"

-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올라온 손동현 기사와 그에 관련한 댓글들

신문기사와 댓글의 대부분은 작품 안에 있는 헐리웃 영웅들의 특유의 포즈와 사실적 묘사에 기인한다. 이러한 반응은 연예인들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조각 작품이 나왔을 때의 반응과 유사하다. 그러나 필자가 손동현의 작업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적 묘사력 이외의 것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친숙한 이미지 옆에 놓인 '음차'된 낯선 한자다. 표음문자에서 '음차'는 기의가 상실 된 텅 빈 기표들의 조합이다. 손동현의 작업에서 한지와 더불어 '음차'된 한자는 손동현의 개인적 이력(서울대 동양학과 졸업)과 어우러져 작품을 동양화로 인식하게 하는 주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생산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기표들의 총합이다.

팝 아이콘이 '坡狎芽益混'으로 골룸이 '滑凜'으로, 맥도날드가 '老捏斗麥捺兜'로, 슈렉과 동키가 '述厄童奇'로 변환되는 방식. 전시 제목에서부터 작품 제목을 아우르는 이러한 '음차'는 손동현에게 있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문화적 제국주의의 아이콘을 고통스러운 현실의 단면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다. 친숙한 아이콘, 한자문화권에서도 낯선 '음차', <~선생상>이라는 동양적 초상화의 형식. 이것들이 만들어 낸 이질적인 동양화. 이것은 단지, 이질적인 동양화 작품 하나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 문화적 제국주의에서 이질적 아이콘들로 범람하고 있는 우리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텅 빈 기표인 '坡狎'은 'POP'에 의해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기에 '坡狎'은 낯설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다. 손동현의 작업이 이질적이지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